

2019년 5월 10일



시온의 상속

요니 코스키

시온은 상속하는 것은 아마도 예슈아께서 하나님이라는 쟁점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논란거리일** 것입니다 (슥 12:2)!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삼하 5:7), 이스라엘 모든 땅을 일컬을 때에도 쓰입니다. 시온주의의 핵심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온은 얼마나 크며, 누구의 것이며, 그 땅은 어떻게 차지해야 할까요?

창세기 15:18-21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된 땅은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로, 가자지구, 서안지구를 포함하며,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시리아와 요르단까지 뻗어나가기에 심각하게 논란이 될 만합니다!

시온주의에 대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응이 반시온주의인데, 유대인의 정치적 자결권과 이스라엘 국가, 특별히 유대인의 예루살렘 통치에 대한 반대입니다. 서구에서는 유대인의 것임은 괜찮지만, 나뉘지 않은 유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UN의 교육과학문화기구 즉 유네스코는 '문명화된' 나라들이 기권함으로 2016년 '점령된 팔레스타인 결의'를 성공적으로 통과시켜 성전산에 대한 이슬람의 연관성을 편들어 유대-기독교의 연관성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이슬람권에서는 한때 무슬림 (오스만 투르크)이 차지했던 땅이 유대인의 것인 것도 괜찮지 않고, 유대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괜찮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물리적인 그 땅을 약속하셨으며 (창 35:12), 그 어떤 성경도 교회나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랍 민족은 놀랍게도 다른 곳에서 훨씬 더 큰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소유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도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1.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땅에서 목축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창 13장).

2.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선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도**, 헛 사람에게서 사라의 매장지를 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창 23:10-18).

3. 비슷하게, 다윗도 **오늘날 성전산이 있는 곳**,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물을 바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삼하 24:21-25).

4. 예슈아께서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인지 질문 받았을 때 (행 1:6), 다른 우선순위, 즉 성령을 부어주심을 지적하셨습니다.

5. 하임 바이츠만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이기도록 도움을 준 후, 1917년에 유대인들에게 중동에 고향 땅을 약속하는 영국 발푸어 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6. 1948년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국제연맹의 투표에 반응하여 국가를 세웠습니다.

7. 많은 초기 개척자 유대인들은 아랍으로부터 땅을 샀는데, 대개 부재지주였습니다. 어떤 땅은 전쟁 중에 차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탈당했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대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8. 이스라엘이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이것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강탈된 것이 아닌 이유는 현대 아랍 팔레스타인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공격에 이집트와 시리아에 가담했던 요르단으로부터의 방어전 중에 획득한 것입니다.

9. 이스라엘은 방어전에서 획득한 땅을 되돌려 준 사례에 있어 거의 유일합니다.

10. 이스라엘은 모든 아랍 국민들에게 공정하고자 하며, 특히 아랍 기독교인들을 보호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한 겸손하고, 평화롭고, 합법적이고, 때에 맞고, 거룩한 접근법이라고 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땅을 평화롭게 획득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뺏으라고도 명령하셨는데 단 아주 특수한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 후에야 그렇게 될 것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현지 족속의 극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완전히 드러난 후에야 그 땅을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것을 허가하셨습니다. 그런 죄에는 수간(獸姦), 남색, 근친상간, 주술, 자녀 제사 등이 있는데 (출 23:24, 34:12-13; 민 33:52; 신 7:5, 18:9-12, 레 18:2-25), 모두 우리 시대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나중에 애굽에서의 종살이 후에 여호수아 (예슈아와 같은 어근)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차지하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약속된 땅 전체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방어전을 통해 더 많은 영토가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게 만드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열방이 두 국가 해법을 만들어 이 땅을 나누기를 도모해야 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태는 분명 좋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정부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도, 두 국가도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내 아랍인들은 예슈아를 믿고 유대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윗 시대에 에돔 족속 오벰 에돔이 그랬던 것과 같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일로써, 현지 무슬림들 안에 부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한 점은, 예슈아께서 곧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나라들에게서 빼앗아서 차지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전과 사도행전 비교 (2부)

우리는 어떻게 돈과 공동체 실무,

박해를 다뤄야 할까요? 아세르
인트레이터가 사도행전의 메시아닉
공동체에 의해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통찰을 주며, 그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